

#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 다문화 교육의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 조사

: “콩쥐팍쥐”와 “신데렐라” 간 비교 활동을 중심으로

장현정\*·장성민\*\*

## 【 목 차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 1. 서론

이 연구는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 다문화 교육의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을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둔 둘 이상의 텍스트를 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그 효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한국의 초기 다문화 교육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소수자의 동화를 목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didiyo19@hanmail.net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mrch17@inha.ac.kr

적으로 하여 이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나 전통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여 왔다. 반면 최근의 다문화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하는 상호문화적 인식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교육부, 2021), 다수자의 인식 개선에 교육의 초점을 설정한 논의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이종원, 윤여탁, 2020).

다수자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의 선행 담론 가운데에는 비교문화적 또는 상호텍스트적 접근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텍스트를 교육적 제재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가 다수 발견된다(김혜영, 2010; 오지혜, 윤여탁, 2010; 윤여탁, 2009). 이들 연구에서는 인류 보편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하게 형상화된 텍스트들을 다문화 교육 제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반면 이러한 연구들이 학습자 외부에 존재하는 텍스트 자체의 속성이나 서로 다른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연결고리의 논리에 주목하여 텍스트 분석 또는 교수·학습 아이디어 차원의 추상적 담론으로 제한되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더 존재한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 학습자에게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적용하고, 그러한 교육 방식의 효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교육 제재로 활용한 텍스트는 선행 연구들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콩쥐팥쥐류 동화이다(권순희, 김승연, 2011; 김윤주, 2015; 김혜진, 권순희, 2015; 백목원, 2018; 오정미, 2021). “콩쥐팥쥐”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계에 다소간의 이견이 존재하나(권순희, 2012, 2013), “신데렐라”(유럽), “섭한”(중국), “카중과 할록”(베트남) 등 공통의 서사 구조를 지닌 작품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경철, 2005).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를 교육 제재로 삼아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적용하고, 그 효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서로 다른 텍스트 사이의 관련성을 영향과 수용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인 Kristeva(1967)가 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을 설명하며 최초로 사용하였다. Bakhtin(1984)의 대화주의 이론에서는 텍스트를 서로 다른 목소리(담론, discourse)들이 부딪치고 협상하는 대화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크로노토프(chronotop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텍스트 속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호텍스트성의 시각을 따르면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의 '중결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독백'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비중결적'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국내의 초기 담론은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한 순수 인문학 영역에서 주로 전개되어 왔다. 김억의 자유시에 반영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원형에 대한 문제(구인모, 2007; 김진희, 2004)를 포함하여 자국어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비교문학적 접근은 그러한 담론의 대표적인 예이다.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논의는 상이한 나라의 문학 작품들이 서로 주고 받는 영향 관계에 대해서뿐 아니라 문학과 문학 이외의 예술(예 그림), 한 작가와 다른 작가의 작품 사이의 관계, 심지어 동일한 작가의 서로 다른 작품 간 영향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그 초점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적 맥락에서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논의는 학습자가 마주해야 할 대상(텍스트)으로서뿐 아니라 학습 활동의 차원으로 그 의미가 보다 넓게 사용되어 왔다. 이는 주로 학습자의 심층적 이해를 돕거나 비판적 문식성 신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정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McLaughlin & DeVoogd(2004)에서는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교실 실천 방안으로

‘텍스트 또는 미디어 자료 병치하기, 문제 제기하기, 대안 텍스트 구성하기’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Behrman(2006)는 텍스트 간 상호적 관계를 맺는 활동 방식으로 ‘보충 텍스트 읽기, 복수 텍스트 읽기, 저항적 관점으로 읽기, 반론 텍스트 생산하기, 학습자 주도의 연구 과제 수행하기, 사회적 행동 취하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Hartman & Allison(1996)은 교사가 학습자의 탐구성을 촉발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상호텍스트적 관계의 유형으로 보완적(complementary), 논쟁적(conflicting), 통제적(controlling), 공관적(synoptic), 대화적(dialogic) 관계 등을 범주화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학 작품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탐구하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여러 차원에 걸친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다.<sup>1)</sup> 상호텍스트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문화적 기억의 상호텍스트성에 나타난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지닌 존재들에 대한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선주원, 2020: 94)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효과는 Bakhtin이 본래 다성적 장르로 제시한 소설(김혜영, 2010; 선주원, 2020) 뿐 아니라 단성적 장르로 규정한 시(오지혜, 윤여탁, 2010; 윤여탁, 2009)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제시되어왔다.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교육 활동의 효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때에는 Pfister(1985)의 담론을 이론적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Pfister(1985)는 상호텍스트성의 질적 기준을 ‘지시성(referentialität), 의사소통성(kommunikativität), 의식성(autoreflexivität), 구조성(strukturalität), 선택성(selektivität), 대화성(dialogizität)’의 여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은유적 속성이 강한 대화성을 제외한 다섯 항목에 대해 Pfister

---

1) 이 연구에서 상호텍스트성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비교문화적 접근’과 텍스트 자료의 병치, 복수 텍스트 읽기 등을 통해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와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통합적 읽기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가 제안한 정의와 이로부터 도출 가능한 학습 효과 판단의 준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시성은 “텍스트 간 관계가 상호적이며,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의 특성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속성을 의미한다. 지시성에 주목하여 학습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텍스트적 활동을 통해 학습 대상이 되는 목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가’를 판단 준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성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성에 주목하여 학습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텍스트적 활동을 통해 저자(또는 문화 공동체)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하게 되는가’를 판단 준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식성은 “텍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조건과 관련성에 대한 성찰”의 속성을 의미한다. 의식성에 주목하여 학습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텍스트적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가’를 판단 준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조성은 “텍스트 내에 문장을 엮어가는 방식(즉 통사적 연쇄, 결합 관계)”에 대한 속성을 의미한다. 구조성에 주목하여 학습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텍스트적 활동을 통해 학습 대상이 되는 목표 텍스트의 체계, 구조, 형식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가’를 판단 준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선택성은 “여러 가능한 선택항 가운데 기능에 적합한 특정 표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속성을 의미한다. 선택성에 주목하여 학습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텍스트적 활동을 통해 문화적 배경에 따른 표현 차이를 이해하게 되는가’를 판단 준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수도권 소재 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습자 165명(6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적용하고,

활동지를 통해 그러한 활동의 효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참여자)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 가운데 한 가지는, (단일문서 읽기 기반의)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나 언어, 표현 능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말미암아 투입된 교육 활동에 대한 학습자 인식이 식별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으로서 이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 활동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소수의 다문화 학생이 다수의 비다문화 학생들과 통합 교육을 받고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 관여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설계한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 활동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2021년 7월 둘째 주에 국어과 정규수업 한 차시를 할애하여 이루어졌다. 참여자에게는 A4 용지 양면 1장으로 구성된 활동지를 배부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답안지 종이를 별도로 제공하였다. 참여자에게 배부한 활동지에는 “콩쥐팍쥐”, “신데렐라”의 요약된 내용(총 2,604자)과 두 개의 활동 과제를 포함하였다. 두 작품의 요약 정보는 각각 대중서적인 권순궁(2021), 김민웅(2017)의 원문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sup>2)3)</sup> 참여자에게 제시된 활동 과제는 “① 두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② 여러 이야기를 비교하며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의 두 가지이다.

“콩쥐팍쥐”와 “신데렐라”의 요약된 내용을 병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 
- 2) 김민웅(2017)에 수록된 “신데렐라”는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Perrault의 버전이다.
  - 3)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이 연구가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설계할 때 두 작품의 요약 정보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다. “콩쥐팍쥐”와 “신데렐라”는 학생들에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들이 실험적인 교수·학습 활동 적용의 효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이 이 두 작품을 접한 경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 공통기반을 유사하게 맞출 필요가 있었다.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상적인 교수·학습 상황과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탐구해 보도록 한 것은, Behrman(2006)의 ‘복수 텍스트 읽기’와 Hartman & Allison(1996)의 ‘대화적 관계’에 상응하는 상호텍스트적 교수·학습 설계로 볼 수 있다. 협력교사는 학습자 수행에 앞서 5분 이내로 활동 과제를 안내하는 것 외에 명시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sup>4)</sup> 두 개의 활동 과제에 대한 답안 작성은 정규수업 시간을 고려해 45분 내외로 설정하였으며, 분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활동 과제에 대한 참여자 응답은 반복 코딩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고 범주화하였다.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이 지닌 효용을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 반복 코딩을 통한 자료 분석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독자적, 사실적 이해를 넘어선 메타적 인식을 요구하는 활동 과제 ②에 대한 참여자 응답을 대상으로 삼아 주로 이루어졌다. 다만 활동 과제 ②에 대한 응답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 과제 ①에 대한 응답을 부분적으로 참조하였다.<sup>5)</sup>

코딩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코딩은 참여자가 산출한 원자료를 분석 가능한 진술문의 형태로 변환하고 의미가 동일한 진술문을 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코딩의 결과 가운데에는 상호텍스트적 접근과 무관하게 개별 작품의 감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관련된 진술문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 경우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후 코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차 코딩은 1차 코딩을 통해 변환된 진술문 가운데 유사한 것끼리 묶고 하위범주의 이름을 붙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3차 코딩은 2차 코딩을 통해 도출된 14개의 하위범주에 대해 Pfister(1985)의 다섯 가지 이론적 틀에 대응시켜 재분류하고, 상위범주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진은 사전에 협력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상호텍스트적 접근을 활용한 다문화 교수·학습의 의미를 설명하고, A4 3페이지 분량의 수업 안내 자료(3,098자)를 제공하였다.

5) <표 1>-<표 5>에 제시한 대표적 사례를 정리할 때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 과제 ②에 대한 응답이 두 개의 제재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에 초점화된 방식으로 진술되도록 활동 과제 ①의 응답을 참조하여 부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 4. 연구 결과

참여자 165명이 산출한 자료에 대해 반복 코딩을 실시한 결과,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 다문화 교육의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은 총 91개의 진술문으로 범주화되었으며(1차 코딩), 이는 다시 14개의 하위범주(2차 코딩)와 5개의 상위범주(3차 코딩)로 분류되었다. Pfister(1985)의 이론적 틀에 따라 연구 결과를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시성: 상이한 생활양식과 문화적 의미 이해

상호텍스트성의 기준 가운데 지시성은 “텍스트 간 관계가 상호적이며,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의 특성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속성을 의미한다 (Pfister, 1985).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목표 텍스트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심화되는가를 그 효용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

〈표 1〉은 참여자 자료로부터 도출된 2개의 하위범주와 각 범주별 진술문의 대표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총 91개 가운데 15개(16.5%)의 진술문이 지시성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표 1〉 상위범주 “지시성”의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 상이한 문화적 배경의 생활양식 이해	9	콩쥐와 신데렐라에게 주어진 과업의 형태와 범위를 비교하며 상이한 문화적 배경의 생활양식을 이해함.
㉡ 생활양식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 파악	6	콩쥐와 신데렐라가 재나 흙 속에서 콩을 고르는 작업 속에 담긴 의미(식량의 중요성)를 이해함.

지시성이 상위범주 인식의 준거틀로 가정된 일련의 진술문에서는 상이한 생활양식과 그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육 활동의 효용으로 꼽고 있었



다. ㉔가 기표 차원의 사실적 이해를 염두에 둔 효용의 범주라면, ㉕는 기의 차원의 추론적 이해를 염두에 둔 효용의 범주라 할 수 있다. ㉔가 단순히 두 작품 속 서로 다른 정보나 사실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지하는 수준이라면, ㉕는 구체적인 개별 정보, 사실의 차이로부터 그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 추상화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둘 이상의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읽고 학습자로 하여금 기표 차원의 사실적 이해와 기의 차원의 추론적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식은,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을 둔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권순희, 김승연, 2011; 김윤주, 2015). 이는 주로 학습의 시작 단계나 기초적인 텍스트 독해 과정에서 활용되어 왔다.

## 2) 의사소통성: 공동체의 사고 방식에 담긴 문화적 관습 이해

상호텍스트성의 기준 가운데 의사소통성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Pfister, 1985). 구비문학적 속성이 도드라지는 “콩쥐팍쥐”, “신데렐라”를 활용한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저자 개인의 의도뿐 아니라 공동체의 사고방식에 담긴 문화적 관습에 대해 얼마나 심화된 이해를 보이는가를 그 효용의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참여자 자료로부터 도출된 3개의 하위범주와 범주별 진술문의 대표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총 91개 가운데 17개(18.7%)의 진술문이 의사소통성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표 2〉 상위범주 “의사소통성”의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㉔ 자문화 사고 방식의 이해	5	(“콩쥐팍쥐”에서) 착한 사람은 하늘과 조상이 돕는다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이해함.
㉕ 문화적 차이에 따른 특수한 사고 방식의 이해	6	(“신데렐라”에서) 요정 대모의 등장으로부터 서양의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을 이해함.
㉖ 인류 보편의 사고 방식 이해	6	동·서양 모두가 봉건적 사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어 왔음을 이해함.

의사소통성이 상위범주 인식의 준거틀로 가정된 일련의 진술문에서는 공동체의 사고방식에 담긴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육 활동의 효용으로 꼽고 있었다. ㉔가 자문화의 사고 방식에 담긴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는 효용의 범주라면, ㉕와 ㉖는 각각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고방식에 담긴 문화적 관습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는 효용의 범주라 할 수 있다. ㉔-㉖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화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도움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의사소통성은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적 접근을 염두에 둔 기존의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김진영, 2014; 김혜진, 권순희, 2014; 박재인, 2016; 백목원, 2018; 오윤선, 2014; 오정미, 2021). “콩쥐팍쥐”에 권선징악의 사고 방식이 특히 두드러진 것을 두고 “불교에서 포교와 권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김진영, 2014: 93)으로 해석하거나, “신데렐라”와 변별된 “콩쥐팍쥐”의 후반부 서사에 대해 “법교과적 신데렐라형 이야기가 지닌 통념의 의미”를 넘어서는 “성숙된 인식”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승리의 가치”(박재인, 2016)로 규정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고 방식에 담긴 특수성과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3) 의식성: 학습자의 내적 사고 심화

상호텍스트성의 기준 가운데 의식성은 “텍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조건과 관련성에 대한 성찰”의 속성을 의미한다(Pfister, 1985).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내적 사고를 얼마나 심화하는가를 그 효용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

〈표 3〉은 참여자 자료로부터 도출된 4개의 하위범주와 각 범주별 진술문의 대표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총 91개 가운데 32개(35.2%)의 진술문이 의식성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표 3〉 상위범주 “의식성”의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 텍스트 외부 정보와의 연결 촉진	5	“콩쥐팥쥐”가 고을의 이야기인 반면 “신데렐라”가 왕국의 이야기인 것에 역사적 상황의 차이가 존재한 것은 아닌지 물음을 던짐.
㉡ 비판적 안목 형성	5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형성함.
㉢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정립	12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 궁극적으로 서로 비슷한 존재임을 인식함.
㉣ 문학 작품의 재미 강화	10	(하나의 작품만 접했을 때) 손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의 숨은 뜻을 이해할 수 있어 재미를 느낌.

의식성이 상위범주 인식의 준거들로 가정된 일련의 진술문에서는 흥미, 태도 등의 정의적 요인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내적 사고를 심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육 활동의 효용으로 꼽고 있었다. 의식성의 범주로 묶이는 진술문은 〈표 3〉에 제시된 ㉠-㉣만으로도 이미 전체 진술문의 30%를 상회하나, 상호텍스트적 접근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고 개별 작품에 대한 감상만으로 도출되는 효용의 진술문까지 모두 합치면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가 비단 텍스트 속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습득하는 인지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의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효용이 확대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김대행 외, 2000).

㉠은 둘 이상의 텍스트를 나란히 읽는 상호텍스트적 활동이 비단 텍스트 간 비교를 유도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나 배경지식과 같은 텍스트 외부 정보와의 연결도 촉진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양한 경로의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읽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비판적 안목을 형성하고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㉔, ㉕). 또한 하나의 작품만 접했을 때 간과할 수 있는 개별 정보의 숨은 의미를 보다 능동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흥미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㉖).

의식성은 기존의 연구사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자 수용 및 반응, 심미적 읽기 등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문화 소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고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나(김혜영, 2010),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가 문학의 보편성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오지혜, 윤여탁, 2010)은 기능 일변도의 교수·학습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문학 치료에 “콩쥐팍쥐”의 서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내면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고자 한 시도 또한 그러한 인식의 범주 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권순금, 2014).

#### 4) 구조성: 텍스트의 장르 관습 이해

상호텍스트성의 기준 가운데 구조성은 “텍스트 내에 문장을 엮어가는 방식(즉 통사적 연쇄, 결합 관계)”에 대한 속성을 의미한다(Pfister, 1985).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목표 텍스트의 체계, 구조, 형식에 대해 얼마나 심화된 이해를 보이는가를 그 효용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

〈표 4〉는 참여자 자료로부터 도출된 3개의 하위범주와 각 범주별 진술문의 대표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총 91개 가운데 16개(17.6%)의 진술문이 의식성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표 4〉 상위범주 “구조성”의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① 인물 구성 방식의 차이 이해	4	핍박을 받는 주인공이 언니와 동생으로 다르게 나타났을 때의 효과가 상이함을 느낌.
㉔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 이해	5	“콩쥐팥쥐”에서 ‘복수’라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능동적으로 쟁취하고 있다는 점이 “신데렐라”에서와 다름을 느낌.
① 이야기 결말의 차이 이해	7	“콩쥐팥쥐”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신데렐라”는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진정한 해피엔딩은 “신데렐라”라고 생각함.

구조성이 상위범주 인식의 준거들로 가정된 일련의 진술문에서는 인물, 사건 등 소설 텍스트의 장르 관습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육 활동의 효용으로 꼽고 있었다. ①와 관련해서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핍박을 받는 주인공이 언니와 동생으로 다르게 나타났을 때의 효과가 상이함’을 느낀다는 점 외에 “콩쥐팥쥐”가 그 제목에 선악의 대립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콩쥐의 조력자가 신데렐라의 조력자와 달리 반동 인물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 행동을 한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었다. ㉔와 관련해서는 특히 콩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팥쥐와 계모를 벌하는 일련의 서사에 참여자의 주의를 집중되고 있었다. ①은 〈표 4〉 가운데 서로 다른 의미의 진술문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참여자 간 이견이 분분했던 하위범주이다. 얼핏 보기에 ‘해피엔딩’으로 동일해 보이는 두 작품의 결말이 행복을 바라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된 것이다.

“콩쥐팥쥐”의 독자적인 형성 과정을 고찰하거나, 전래동화 또는 옛이야기를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다시쓰기”하도록 하는 것은 구조성과 맥락을 공유하는 접근 방식들이다. 대표적으로 권순공(2012, 2013)에서는 “콩쥐팥쥐”가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의 이야기라는 견해에 대하여 그 서사 구조가 “신데렐라”와 같은 단순한 ‘혼인담’이 아니라 ‘과제제시형 계모박해담’이라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그 독자성과 특수성을 지적한 바 있

다. 오윤선(2015), 이은자(2019) 등에서는 다시쓰기를 통해 전래동화나 옛 이야기의 서사 구조에 담긴 한국 문화의 본질을 학습자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전달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5) 선택성: 소재의 원형적, 관습적 상징 이해

상호텍스트성의 기준 가운데 선택성은 “여러 가능한 선택항 가운데 기능에 적합한 특정 표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속성을 의미한다(Pfister, 1985).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문화적 배경에 따른 표현 차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를 그 효용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

〈표 5〉는 참여자 자료로부터 도출된 2개의 하위범주와 각 범주별 진술문의 대표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총 91개 가운데 10개(11.0%)의 진술문이 의식성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표 5〉 상위범주 “선택성”의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하위범주	진술문 수	대표적 사례
㉓ 소재의 원형적 상징 이해	3	유리구두의 속성을 이해함.
㉔ 문화적 관습에 따른 소재의 차이 이해	7	“콩쥐팥쥐”에서 소, 참새, 두꺼비가, “신데렐라”에서 말, 쥐 등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친근한 동물이 무엇인지 이해함.

선택성이 상위범주 인식의 준거들로 가정된 일련의 진술문에서는 소재의 원형적, 관습적 상징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상호텍스트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 교육 활동의 효용으로 꼽고 있었다. ㉓이 유리구두, 꽃신 등 소재의 원형적 상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효용의 범주라면, ㉔은 문화적 관습에 따른 소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효용의 범주라 할 수 있다. 신데렐라 구두의 재료인 유리는 속이 투명하게 다

보인다는 점, 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원형적 상징으로 포함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반면 두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이 다르다는 점은 문화적 관습에 따른 소재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선택성의 범주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소재 가운데 하나는 ‘신발’이다. “콩쥐팥쥐”에서 콩쥐가 잃어버린 ‘꽃신’은 “신데렐라” 속 ‘유리구두’와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모두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즉 유리구두가 원형적으로 여성의 순결성이나 성적 상징물의 의미를 내포하는 반면, 꽃신은 ‘깊신도 제 짝이 있다.’에서처럼 짝을 찾는 화소로서의 속성이 강하며 “콩쥐팥쥐” 후반부에 등장하는 ‘젓가락’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권순금, 2012). 문화적으로도 유리구두는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거나 문명의 산물로 해석되는 반면, 꽃신은 불교적 관점에서 신성한 존재로 해석되곤 하였다(노제운, 2020).

## 5. 결론

이 연구는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그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호텍스트성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두 작품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비교문학적 접근’과 텍스트 자료의 병치, 복수 텍스트 읽기 등을 통해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와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통합적 읽기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의 질적 기준을 지시성, 의사소통성, 의식성, 구조성, 선택성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 Pfister(1985)의 기준에 따라 반복 코딩을 실시하고, 각 준거에 따른 하위범주와 진술문을 살펴 보았다.

Pfister의 이론적 틀에 따라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인식한 효용을 분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문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시성 범주에서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상이한 생활양식과 그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문에서 그 효용에 대한 인식은 기표 차원의 사실적 이해(㉓)와 기의 차원의 추론적 이해(㉔)로 나뉘고 있었다. 둘째, 의사소통성 범주에서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공동체의 사고 방식에 담긴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문에서 그 효용에 대한 인식은 자문화 고유의 사고 방식에 대한 이해(㉕)와 타문화 사고 방식과의 차이점, 공통점(㉖, ㉗)에 대한 이해로 나뉘고 있었다. 셋째, 의식성 범주에서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은 흥미, 태도 등의 정의적 요인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내적 사고를 심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문에는 텍스트 외부 정보와의 연결 촉진(㉘), 비판적 안목 형성(㉙),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정립(㉚), 문학 작품의 재미 강화(㉛) 등이 그 효용으로 꼽히고 있었다. 넷째, 구조성 범주에서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장르 관습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간 비교를 통해 인물 구성 방식의 차이(㉜),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㉝), 이야기 결말의 차이(㉞) 등을 포착해 내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성 범주에서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은 학습자가 소재의 원형적(㉟), 관습적(㊱) 상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전문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었던 순수 인문학 영역의 비교문학적 접근을 교육 활동으로 구현하고, 그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학습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호텍스트적 접근 고유의 교육적 가치를 엄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협력학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수·학습 설계 시 배제한 것은, 향후 (연구가 아닌)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여건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다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교육 담론에서 하나의 참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 구인모(2007). 베를렌느, 김억, 그리고 가와지 류코(川路柳湖): 김억의 베를렌느 시  
원전 비교연구. 비교문학, 41, 한국비교문학회, 153-174.
- 권순궁(2012). <콩쥐팍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51-283.
- 권순궁(2013). 전래동화 <콩쥐 팍쥐>의 형성과정. 민족문화사연구, 52, 민족문화사  
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110-141.
- 권순궁(2014). <콩쥐팍쥐> 서사의 문학치료학. 문학치료연구, 30, 한국문학치료학  
회, 43-72.
- 권순궁(2021). 콩쥐팍쥐전. 휴머니스트.
- 권순희, 김승연(2011). 콩쥐팍쥐류 동화의 문화 맥락 탐구학습과 다문화 이해 교육.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since1969), 21-60.
- 김대행, 우한용, 정병헌, 윤여탁, 김종철, 김중신, 김동환, 정재찬(2000). 문학교육원  
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민웅(2017). 동화독법. 이봄.
- 김윤주(2015).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 상호문화교육 모형에 기반하  
여. 한성어문학, 34, 한성어문학회, 295-318.
- 김진영(2014). 불교서사의 선악대립과 문학사적 의미. 인문학연구, 50(4), 충남대학  
교 인문과학연구소, 89-115.
- 김진희(2004). 근대 문학의 장(場)과 김억의 상징주의 수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334-357.
- 김혜영(2010).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의 다문화 소설 읽기: 「나마스테」와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85-103.
- 김혜진, 권순희(2015). 콩쥐 팍쥐 모티프 설화를 활용한 문화 학습 모형의 국어교육

- 방안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7, 한중인문학회, 85-114.
- 노제운(2020). 「콩쥐팍쥐」 그림책에 나타난 ‘혼인’의 의미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6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7-40.
- 박재인(2016). 설화 <콩쥐팍쥐>에서 나타난 경쟁 문제와 승리의 서사로서의 가치. *인문과학*, 61,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3-222.
- 백목원(2018). 국내·외 전래 동화 독서 활동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93-716.
- 선주원(2020). 문화적 기억의 상호텍스트성 이해를 통한 상호감수성 증진을 위한 서사교육 내용. *독서연구*, 55, 한국독서학회, 81-104.
- 오윤선(2014). 19세기말-20세기초 영문(英文)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 연구.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화회, 145-179.
- 오윤선(2015). 영문 한국전래동화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콩쥐팍쥐 이야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387-420.
- 오정미(2021).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법론 연구: 다국적의 구비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 1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9-129.
- 오지혜, 윤여탁(2010).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551-588.
- 윤여탁(2009).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6(1), 한국언어문화학회, 53-70.
- 이은자(2019). 한국어교육을 위한 옛이야기 ‘다시쓰기’: 구술성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25-150.
- 이종원, 윤여탁(2020). 국어교육에서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인식 교육의 가능성 탐색: 국어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5-125.
- 주경철(2005).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처럼.
- Bakhtin, M. (1984).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Emerson, C. ,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hrman, E. H. (2006). Teaching about language, power, and text: A review of classroom practices that support critical literacy. *Journal of Adolescent and Adult Literacy*, 49(6), 490-498.
- Hartman, D., & Allison, J. (1996). Promoting inquiry-oriented discussions using multiple texts. In L. B. Gambrell, & J. F. Almasi (eds.). *Lively discussions! Fostering engaged reading* (pp. 106-133). Newark: IRA.
- Kristeva, J. (1967). Bachtin, das Wort, der Dialog und der Roman. In D. Kimmrich, R. G. Renner, & B. Stiegler (eds.), *Texte zur Literaturtheorie der Gegenwart* (pp. 334-348). Reclam.
- McLaughlin, M., & DeVoogd, G. (2004). Critical literacy as comprehension: Expanding reader respons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8(1), 52-62.
- Pfister, M. (1985). Konzepte der Intertextualität. In U. Broich, & M. Pfister (eds.). *Intertextualität: Formen, Funktionen, anglistische Fallstudien* (pp. 1-30). Tübingen: Niemeyer.

## 초록

#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 다문화 교육의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 조사

: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간 비교 활동을 중심으로

장현정 · 장성민

이 연구는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그 효용에 대한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호텍스트성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두 작품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비교문화적 접근’과 텍스트 자료의 병치, 복수 텍스트 읽기 등을 통해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와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통합적 읽기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의 질적 기준을 지시성, 의사소통성, 의식성, 구조성, 선택성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 Pfister(1985)에 따라 반복 코딩을 실시하고, 각 준거에 따른 하위범주와 진술문을 살펴 보았다.

---

**핵심어:** 다문화 교육, 상호텍스트성, 비교문화, 지시성, 의사소통성, 의식성, 구조성, 선택성, 콩쥐팥쥐, 신데렐라

## Abstract

#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n benefi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intertextual approach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ctivity between “Kongjwi and Patjwi” and “Cinderella”

Jang, Hyunjung · Chang, Sungmin

This study designed a multicultural education activity based on an intertextual approach and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its benefits. In this study, intertextuality was used as a concept encompassing both comparative literature approach, which explo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different texts based on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Kongjwi and Patjwi” and “Cinderella,” and integrated reading activity, which fosters an attitude of cultural relativism and a critical perspective through juxtaposition of text materials and reading multiple texts. The study conducted repeated coding according to Pfister (1985), who categorized the qualitative criteria of intertextuality into referentiality, communicativeness, reflexivity, structurality, and selectivity, and examined the subcategories and statements according to each criterion.

---

**Key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textuality, comparative literature, referentiality, communicativeness, reflexivity, structurality, selectivity, Kongjwi and Patjwi, Cinderella

이 논문은 2022년 1월 15일에 접수하여 2022년 2월 6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7일에 게재를 확정함.